

발 원 문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서 세월호가 올라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의 차가움과 아픔은 깊은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9명의 미수습자는 이제 모든 국민의 가족입니다. 모두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손모아 발원합니다.

남은 인양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묻혀졌던 진실들이 드러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성심으로 바라옵니다.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의 공덕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고통에 있는 가족들과 국민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두루 갖추신 부처님의 명호로써, 희생자들이 모든 고통을 여의고,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겨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의 고귀한 의미가 우리의 삶에 지혜의 연꽃으로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과 평화, 평등과 존중의 세상이 환하게 열려가기를 모두의 정진과 실천으로 발원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